

대구시민의 소방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Daegu Citizen on Fire Safety

방창훈[†] · 최영상

Chang-Hoon Bang[†] · Young-Sang Choi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004. 5. 13. 접수/2004. 8. 13. 채택)

요 약

본 연구는 대구시민의 소방안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여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대구 시민 553명에 대하여 2003년 10월 2일부터 15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구시민들은 우리사회의 소방안전의식을 낮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시민들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TV, 신문 등 언론홍보강화(30.7%),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24.6%),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교육 강화(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ly basis data that can improve the recognition of Daegu citizens on fire safet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ir recognition on fire safety. To achieve the purpose, 553 Daegu citizens in Daegu city were interviewed from Oct. 2 to 15, 2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itizens had thought little the recognition of our society on fire safety and Daegu subway fire accident caused very big effect in citizens' fire safety recognition. Citizens did not trust about fire fighting facilities that is established in the building. Method to elevate recognition for citizens' fire safety recognition appeared by TV, newspaper, etc public information reinforcement (30.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ire safety experience center (24.6%), fire safety education reinforcement in school (20.8%).

Keywords : Fire safety recognition, Citizen

1. 서 론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신문명의 이기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과밀한 도시의 교통수단으로 새로이 등장한 지하철은 우리나라에 1973년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시민들의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서처럼 재난 발생시에는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끼친다.

과학기술 기반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험(Risk)

은 사회적 구성요소이며, 생활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일상의 일부이다¹⁾. 따라서 위험을 관리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체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재난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구 시민들은 지하철화재 사고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민의 소방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E-mail: bch@mail.kbc.ac.kr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인원은 총 553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보완하였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구시 각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사하였다.

2.2 연구방법 및 절차

소방안전의식조사의 주요 개념 및 구성 항목은 문헌 고찰과 관련 교수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3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된 연구 자료는 모두 전산 부호화하여 SPSSWin 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3. 결과분석

대구시민의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조사내용을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소방안전의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통(35.8%), 약간 낮다(27.7%), 매우 낮다(19.3%)으로 각각 나타나 대구시민들은 우리사회의 소방안전의식을 낮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소방안전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매우 큰 영향(48.1%), 약간 영향(41.6%)으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에서 지하철과 관련된 대형사고는 1995년 지하철 1호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사망자 102명), 2000년 지하철 2호선 신남대거리 지반붕괴사고(사망자 3명)가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정부는 매번 비일관적 대응과 위기상황을 벗어나려는 책임전가,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해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징적 대응하면서 결국 안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실패와 사회 전반적인 안전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²⁾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신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약간 불신(31.5%), 보통(28.2%)으로 시민들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처럼 화재발생시 소방설비가 화재진압 및 대피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에 대한 점검과 성능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민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중이용업소(31.5%), 공장(21.2%), 지하공간(1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화재발생지역 통계자료³⁾에서는 주택·아파트(27%), 차량(19.3%), 공장·작업장(10.9%)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최근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분야는 소방안전(28.9%), 교통안전(25.5%), 가스안전(16.8%)으로 조사되어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의 화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없다(85.7%), 있다(14.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egu citizens

구분	유형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298	53.9
	여자	255	46.1
연령	10대	43	7.8
	20대	309	55.9
	30대	90	16.3
	40대	78	14.1
	50대	24	4.3
	60대 이상	9	1.6
직업	자영업	53	9.6
	직장인	104	18.8
	전문직	24	4.3
	주부	51	9.2
	학생	302	54.6
	기타	19	3.4
주거형태	단독주택	152	27.5
	아파트	259	46.8
	다세대주택	89	16.1
	오피스텔	5	0.9
	원룸	32	5.8
	기타	16	2.9
학력	초졸	112	2.0
	중졸	23	4.2
	고졸	267	48.3
	대졸이상	252	45.6

Table 2. Fire safety recognition of Daegu citizens

문항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소방안전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28	5.1
	약간 높다	67	12.1
	보통	198	35.8
	약간 낮다	153	27.7
	매우 낮다	107	19.3
	무응답	0	0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귀하의 소방안전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매우 큰 영향	266	48.1
	약간 영향	230	41.6
	영향 없음	57	10.3
	무응답	0	0
귀하께서는 대구지하철화재 후, 보수 및 개선된 지하철내의 소방(화재)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	24	4.3
	약간 신뢰	106	19.2
	보통	164	29.7
	약간 불신	164	29.7
	매우 불신	94	17.0
	무응답	1	0.2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건물에 설치된 감지기 등의 소방설비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	19	3.4
	약간 신뢰	112	20.3
	보통	156	28.2
	약간 불신	174	31.5
	매우 불신	92	16.6
	무응답	0	0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곳에서 화재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점 등)	33	6.0
	다중이용업소(노래방, PC방 등)	174	31.5
	지하공간(지하상가 등)	101	18.3
	아파트, 주택	23	4.2
	재래시장	92	16.6
	차량	6	1.1
	사무실	6	1.1
	공장	117	21.2
	무응답	1	0.2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전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소방 안전	160	28.9
	교통 안전	141	25.5
	치안 안전	71	12.8
	시설물 안전	45	8.1
	학교 안전	41	7.4
	가스 안전	93	16.8
	무응답	2	0.4
귀하께서는 최근 5년 동안 직접 화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78	14.1
	없다	474	85.7
	무응답	1	0.2
귀하께서는 현재 소방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활용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34	6.1
	보통이다	266	48.1
	부족하다	253	45.8
	무응답	0	0
귀하께서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가스화재 등 화재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278	50.3
	모른다	273	49.4
	무응답	2	0.4

Table 2. Continued

문항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귀하께서는 가정 내에 소화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	232	42.0
	없다	321	58.0
	무응답	0	0
귀하께서는 소화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용한 경험이 있다	195	35.3
	사용한 경험이 없다	358	64.7
	무응답	0	0
귀하가 계시는 가정 또는 사무실내의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비상벨 등)의 설치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267	48.3
	모른다	281	50.8
	무응답	5	0.9
귀하께서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130	23.5
	없다	419	75.8
	무응답	4	0.7
귀하께서는 소방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되면 받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	424	76.7
	없다	108	19.5
	무응답	21	3.8
일반 시민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학교	190	34.4
	소방서	154	27.8
	민간단체	35	6.3
	민방위 훈련시	34	6.1
	TV, 신문 등 언론	139	25.1
	무응답	1	0.2
일반 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자료 개발 보급	41	7.4
	TV, 신문 등 언론 홍보 강화	170	30.7
	소방안전 체험관 설치 및 운영	136	24.6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교육 강화	115	20.8
	정기적인 교육 기회 제공	90	16.3
	무응답	1	0.2

소방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활용기능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48.1%), 부족하다(45.8%)로 조사되었으며, 일반화재, 유류화재 등 화재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시민들은 알고 있다(50.3%), 모른다(49.4%)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 내의 소화기 보유는 있다(42%), 없다(58%)로 조사되었으며 소화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35.3%), 없다(64.7%)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화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 또는 사무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치위치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알고 있다(48.3%), 모른다(50.8%)로 조사되었다. 이번 대구지하철화재에서처럼 객차 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하

지 못하였으며, 또한 객차의 비상개폐장치와 피난유도 등의 피난시설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건물 내에 설치된 소화기의 사용방법과 피난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응답자의 75.8%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되면 받을 생각이 있는 응답자가 76.7%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 시민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지하철 사고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소방안전의식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학교(34.4%), 소방서(27.8%), TV, 신문 등 언론(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TV, 신문 등 언론홍보강화(30.7%),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24.6%),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교육 강화(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사고 때에는 경각심이 높다가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재의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⁴⁾ 따라서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언론홍보 및 소방안전체험관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시민의 소방안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여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구시민들은 우리사회의 소방안전의식을 낮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구 시민들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약간 불신(31.5%), 보통(28.2%)로 조사되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분야는 소방안전(28.9%), 교통안전(25.5%), 가스안전(16.8%)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분야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시민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학교(34.4%), 소방서(27.8%), TV, 신문 등 언론(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일반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TV, 신문 등 언론홍보강화(30.7%),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24.6%),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교육 강화(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언론홍보 및 소방안전체험관운영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임승빈, “지역사회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탐색”,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보, Vol. 15, No. 1, pp1-21(2003).
2. 김상돈, 안황권, “인위재난의 위기관리학습에 관한 연구 -2.18 대구지하철화재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15, No. 3, pp273-293(2003).
3. 2003년 화재통계 및 사례집, 경상북도(2003).
4. 이상호, 이재복, “대구지하철 사고에 따른 화재 의식조사 및 방재의식 변동모형에 관한 연구”, 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 17, No 3, pp45-49(2003).